

## 부부간 유사성 및 일치도가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 은 지<sup>†</sup>

박 재 호

영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개인특성의 유사성과 배우자와 자기상에 대한 일치도가 부부간의 결혼만족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임의로 선정된 231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부부간 유사성은 우호성과 과업지향성의 조합으로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배우자 및 자기상일치도는 배우자와 자신에 대한 현재상과 희망상의 자기지각간의 차이수준으로 산출하였다. 주요결과는 첫째, 부부가 함께 과업지향성 특성을 지닐 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부부간 개인특성이 유사한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일치하더라도 아내보다 남편이 더 과업지향적인 경우에는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배우자 및 자기에 대해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 유사성효과 외에도 부부간에 성역할기대가 있으며, 배우자 희망상 파악이 부부관계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부부유사성, 자기상일치도, 배우자상일치도, 결혼만족, 커뮤니케이션

<sup>†</sup> 교신저자 : 김은지,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712-749) 경산시 대동 214-1  
E-mail: pink0227@hanmail.net

가족구조가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변화하면서 과거 수직적이던 부부관계가 평등적, 동반자적 부부관계로 변화하였다. 또한 삶의 질도 향상되면서 부부간의 결혼만족(satisfaction)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부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표현하는 수단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함께 중시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인의 이혼은 외적 요인보다 기혼자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의 개인적 특성이 결혼만족과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의의가 있다. 기혼자의 개인적 특성은 부부간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런 조합유형에 따라 결혼생활의 주관적 경험에 차이가 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기존의 부부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기혼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예: 성격, 태도, 가치관 등)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부부간의 개인 특성의 유사성 여부가 부부관계 즉 결혼만족과 커뮤니케이션 각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렇게 부부의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부부간 개인특성의 유사성 외에도 기혼자의 자기와 배우자에 대한 현재 수준과 이상의 일치수준이 부부관계의 질에 기여하는 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매우 제한적임이 발견된다. 부부관계 연구는 구조적, 기능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부부 개인의 내적변인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상호작용 변인에 초점을 두고 변화해가는 추세이며(예: 고재홍, 전명진, 2003; 김향련, 고재홍, 2007; 박영화, 고재홍, 2005; Acitelli, et al., 1993; Gonzaga, Campo, &

Bradbury, 2007), 부부간의 문제에서 환경적 요인보다도 두 사람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해결되는 부분이 더 많음(Margolin & Wampold, 1981 참조)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부부관계가 역동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아내의 지각을 바탕으로 부부관계를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부부의 결혼생활은 두 개인이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므로 부부의 상호작용을 상호역동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특성의 유사성 및 자기와 배우자상의 일치도 크기가 결혼만족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결혼관계의 부부를 쌍으로 묶어서 부부간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소수의 부부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들의 지각평정 방식을 살펴보면, 부부간의 지각차이를 조사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 검사를 남편과 아내 양쪽에게 함께 실시하여 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각평정방식은 부부와 같은 특별한 이자(dyad)관계 연구에서는 한계점이 많다. 따라서 부부간의 상호평정방식에 보다 적합한 과학적인 측정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Bales(1979)가 개발한 SYMLOG(A SYstem for the Multiple Level Observation of Groups)형용사 척도를 활용하여 자기지각 및 배우자지각을 상호 평정하고자 하였다. SYMLOG이 특별한 이자관계인 부부나 가족관계에서도 매우 유용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는 조직개발을 위한 진단 도구(박재호, 1988 참조) 또는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부부관계 연구에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으나, SYMLOG이 집단역학과 집단성원들 상호간에 형성되는 지각관계를 연구하는 이론이자 방법론이며, 이 평가방식이 자기에 대한 지각 및 상대방에 대한 지각인 부부양자간의 상호지각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관계 진단 및 관계향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기존의 부부관계 연구에서 놓친 부부간의 상호지각을 SYMLOG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와 커뮤니케이션역량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하였다.

#### 부부간 개인 특성과 부부관계 질과의 관계

한 해에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들은 전체 이혼의 50%에 달할 정도로 부부간의 개인적 특성은 결혼생활의 적응과 갈등에 영향을 주며, 관계에 만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arney & Bradbury, 2000). 성격차이를 이유로 내세우는 부부들은 배우자의 성격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보고한다. 이들의 보고처럼 개인특성과 관계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관계만족에 유의하게 예측하는 개인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거나 두 사람의 특정한 개인적 특성의 유사한 수준이 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다루었다.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부부간 개인적 특성의 유사성과 부부관계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어떤 개인적 특성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에서는 자신의 어떤 특성이 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지를 다루는 반

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상대의 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타인에 대한 지각을 연구하는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과 달리 대인간 지각(interpersonal perception)분야는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Sillars & Scott, 1983). 따라서 자신 혹은 배우자의 특성 중 하나만을 다룰 경우, 부부의 결혼생활은 남편과 아내라는 두 개인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가는 과정이므로 이 결과들로 결혼만족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결론짓기 어렵다. 부부는 대표적인 이차관계인 동시에 상호의존적 관계이므로 한 쪽의 행동대로 다른 쪽이 대응하는 상호성(reciprocity)이 존재한다. 상호성은 주로 행동의 교환에서 나타나는데,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호감의 상호성이 입증되었다(Kenny & Nasby, 1980).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 대해 만족할 때, 그 아내도 남편에 대해 만족해 한다는 것이다. 부부상호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변인은 다양하지만, Kenny와 Acitelli (1994)은 그 중에서도 부부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야말로 대표적인 대인지각연구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행동주의 이론을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 이론에서는 부부관계에서 주고받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부부만족이 설명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관계 안에서 나누는 긍정적인 행동은 부부관계를 강화시켜주며, 부정적인 행동은 부부관계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Gottman, 1993; Jacobson & Margolin, 1979). 따라서 부부관계의 질을 촉진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부정적 패턴을 적게 사용하고 긍정적 패턴을 주로 사용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결혼만족 또한 높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부부 간 개인적 특성의 유사성이 부부간

의 결혼만족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적 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다루는 일부 연구자들은 개인들을 구분하는 여러 특성들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로 보편적인 검사들(예: MMPI, 16PF, NEO-성격검사)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MPI와 같은 검사들이 대체로 관계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들을 포함한 반면에 부부관계와 같은 중요한 이차관계에서 상호지각을 살펴볼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SYMLOG 형용사 평정척도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Bales는 Lewin의 집단역학 개념을 확장하여 SYMLOG이라는 새로운 장이론(field theory)을 제시하면서, 모든 행위가 상호작용적인 영향력의 장(field)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40년 이상에 걸쳐 성격검사자료, 가치관 기술자료, 자기지각과 타인지각에 대한 평정, 그리고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수천회 이상에 걸쳐 실시된 관찰과 다차원적인 변량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음의 3개의 차원으로 제안하였다(박재호, 1988). 세 차원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호성 차원(Positive-Negative: P-N차원): 대인관계 차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호성은 P로 비우호성은 N으로 표시된다. 비우호성은 불친절하며 자기 본위적이고, 자기 보호적으로 지각되는 행위나 가치와 관련이 있고, 우호성은 친절하며 평등주의적이고 협조적이며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행위나 가치와 관련이 있다. 이 차원은 집단에서 성원 상호간의 대인관계에서 친절하고 우호적인 행동이나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지에 대한 지향성을 나타낸다.

(2) 과업지향성 차원(Forward-Backward: F-B차

원): 집단성원이 목표 지향적이고 과업 지향적인지 또는 감정적 및 관계지향적인지에 대한 평가로써, 이 차원은 집단에서 성원들이 집단규범이나 가치를 수용하고 집단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지 혹은 집단의 목표보다는 감정적이고 관계 지향적 행동이나 가치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지에 대한 지향성을 나타낸다.

(3) 지배성 차원(Upward-Downward: U-D차원): 지배성(U)과 복종성(D)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집단에서 성원들 사이에 영향을 주는 것과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한 평가로써 집단에서 성원 상호간에 나타나는 지위, 권한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지향성(Orientation)을 나타낸다. 즉 집단에서 지배적인 행동이나 가치성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혹은 피동적이며 복종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지에 대한 지향성을 나타낸다.

SYMLOG은 집단의 융합내지는 분열정도를 진단하여 건전한 상태로의 변화를 제시할 수 있으며, SYMLOG 평정표의 26개 문항들에 사용되는 특성들을 바탕으로 각 개인의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한편 어떤 특성이 부부관계와 관련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과 개인적 특성의 부부간 유사성이 부부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유사성 효과가 작용하는지와 부부간에 개인적 특성이 다양한 형태로 조합을 이룰 때 각각의 부부관계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부간 특성의 유사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격이 서로 유사할수록 관계에 만족하는지, 서로 불일치할수록 관계에 만족하는지와 관련된 논쟁은 계속 지속되어 왔다.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유사성 효과는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적은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재홍, 전명진, 2003; 김미경, 고재홍, 2008; Gonzaga, Campo, & Bradbury, 2007). 또한 성격의 차이가 없는 부부일수록 그 가정의 불화가 적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정서적 및 행동적으로 더 건강하였다(Dawson, 1991; Kline, Johnston, & Tschann, 1991).

이상의 연구들은 부부의 경우, 성격이나 가치관 등에서 대체로 유사성 효과가 나타남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양자가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가 관계의 질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일부의 특성에서는 상보성 원리(complementarity principle)가 우세한 경우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보완해 줄 특성들을 가진 타인을 좋아한다는 것이다(Meyer & Pepper, 1977). 예를 들어 친밀한 관계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지배적 행동을 하면 복종적으로 반응하고, 복종적으로 행동하면 지배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집단의 리더들은 권력욕구가 약한 부하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Tracey, Ryan, & Jaschik-Herman, 2001). 이처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개인적 특성의 내용에 따라 유사성 원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는 반면, 상보성 원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부부 쌍을 단위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개인의 특성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들 가운데 이선희(2000)는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향적인 부부들이 내향적인 부부보다 더 결혼에 만족하였으며, 부부가 불일치한 경

우 남편이 더 외향적이고 아내가 내향적인 부부들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결혼만족이 높았다. 또한 오선주(2002)는 결혼만족과 관련성이 높으리라 가정되는 특성들과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편은 자신이 안정적이고 그 아내가 사회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았고, 아내는 자신과 남편이 함께 안정적일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였다. 한편 결혼생활에서의 역할기대와 결혼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Craddock(1991)은 결혼생활에서의 역할에 대한 유사한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만족 수준이 높고 태도가 유사하지 않을수록 갈등이 높아 결혼만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이 결과들을 요약하면 부부간에는 개인적 특성의 내용에 따라 유사성효과나 상보성 원리가 작용하나, 배우자인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한 성역할기대 또한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 중에는 특히 성역할과 관계만족을 다룬 연구들이 현저하게 많다. 남편과 아내의 성차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선호기준이 다름을 연구한 Buss(1990, 1993)는 선호하는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 성차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더 선호하고 여성은 남성의 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선호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Buss는 이 결과의 이유를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남성들은 종족보전을 위해 매력적이고 건강한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반면에 여성들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남성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Conger 등(1992)의 연구에서는 남편들은 업무나 경제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민감한 반면에

아내들은 가족과 관련된 대인관계 사건에 더 많이 노출되고, 민감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부부의 이런 성차를 장춘미(1998)는 남편의 주된 역할이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이므로 가정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느끼고, 아내들은 업무보다는 관계 중심적이고, 부부관계에 투자하는 경향이 남편들보다 강하여서 남편에 비하여 관계에서 주고받는 행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개관해 볼 때, 부부간에는 단순히 유사성효과 외에도 성차로 인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유사성효과와 함께 불일치하는 경우 성역할기대가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부 쌍의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SYMLOG의 세 차원 중 과업지향성차원의 유사성과 성(性)의 부부간 조합으로 네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SYMLOG의 세 차원 중 과업지향성차원은 Buss (1990, 1993)와 장춘미(1998)의 남편에 대한 선호도와 상통하기 때문에 다른 두 차원에 비해 과업지향성에서는 상보성원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었다.

국내외 SYMLOG 연구에서는 부부관계를 다룬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지금까지 개인적 특성과 관계만족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석말숙(1989)은 문제행동 청소년가족과 일반청소년가족의 집단역동을 비교하였는데, 문제행동 청소년가족의 부는 유의하게 지배적인데 반해 모는 복종적이라는 것과 또한 문제가족 부모가 유의하게 비우호적이며 과업지향적임을 발견하였다. 진명옥(1995)은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업만족여부의 조합으로 네 집단을 구분하여 가족성원들의 상호지각과

서로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결과 맞벌이 부부들은 자신이 좀 더 지배적이길 희망하였고 자신이나 배우자가 감정지향적(비과업지향적)인 것을 유의하게 거부하였다. 또한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자기 일에 만족하는 아내를 둔 남편은 아내에 대해 우호적으로 지각하였다. 손현주(2004)는 부인의 취업유무와 정서역량에 따른 부부 상호지각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아내가 지배적이고 과업지향적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남편들은 아내가 감정지향적(비과업지향적)이길 유의하게 희망하였다. 또한 감성역량이 높은 부부들은 스스로 우호적이며 감정지향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으며 상대 배우자가 감정지향적이길 희망하고 있었다. 김혜주(2005)는 정서역량차원에 따른 부부의 상호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정서역량이 높은 남편들이 낮은 남편들보다 자신과 아내에 대해서 유의하게 지배적이며 우호적으로 행동한다고 지각하였다. 정서역량이 높은 아내들도 자기 및 배우자가 우호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와 같이 SYMLOG을 통해 자기 및 배우자의 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부인의 취업여부 및 정서적 역량 수준에 따라 현재상과 희망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SYMLOG의 특성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성역할 및 관계만족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우호성차원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유의한 관련이 있으리라 추정되며 남편이 아내보다 과업지향성이 더 높을 때, 관계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박영화와 고재홍(2005)은 지금까지의 부부관

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부 쌍보다는 개별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부부 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조차 서로 상관된 쌍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부부를 남편과 아내로 구분하여 부부 중 한 쪽의 특정변인이 다른 쪽의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분석형태를 취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부부 각자의 입장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개인적 특성의 조합으로 구분된 집단을 부부간의 상호 역동적인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 배우자간 상호지각의 일치도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Acitelli 등(1993)은 부부와 같은 특별한 대인관계의 지각에는 유사성 외에도 또 다른 다양한 상호지각의 일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상호지각의 일치도는 결혼만족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관계에 만족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지니는 기준 혹은 기대에 근거해서 관계를 평가한다는 가정은 Thibaut와 Kelly(1959)의 상호의존이론(interdependence theory)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관계만족은 관계에서 갖는 이상적인 기대와 보상(현재수준)을 비교한 결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impson 등(2000)의 이상적 기준모델에서도 상대에 대한 이상적 기준과 현재수준의 지각 차이는 이자관계의 질을 평가하고, 관계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이상은 현재의 수준과 지각 차이가 클수록 관계에 대해 불만족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관계는 자기와 상대방, 그리고 관계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만족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한 만족도 역시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신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여 자기에 대한 이상적 기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Higgins(1989)가 제안한 자기차이이론에서 추론할 수 있다. Higgins는 현재의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차이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며, 그 차이가 큰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지각수준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서 바라는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할수록 양자관계에서 불만족 한다는 것이다.

Simpson 등(2000)의 이상적 기준모델을 부부관계에 적용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만족도(예: 남편자기상 일치도)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예: 부인에 대한 배우자상 일치도)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가져온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 연구에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자신에 대한 만족도 함께 고려할 때 좀더 효과적으로 부부관계연구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부관계에서 이상적 기준들과 현재의 차이가 부부커뮤니케이션 및 결혼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자기 및 배우자상일치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알아보려는 시도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와 자신에 대해서 지니는 이상적 기준과 현재수준의 차이가 부부관계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배우자와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구체적 ‘이상(Wish image)’과 ‘현재상(Current image)’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 차이수준에 따라 부부관계

의 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이상을 잘 파악하는 것도 부부관계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상에 차이가 있다라든가 이를 잘 알고 있다면, 이는 배우자의 이상을 충족시키는 행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배우자의 이상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계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부관계에서는 개인적 특성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기의 희망상과 현재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 부부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간 개인적 특성의 조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부간 개인적 특성의 조합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우호성과 과업지향성의 배우자상일치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역량과 결혼만족이 높을 것이다. 넷째, 우호성과 과업지향성의 자기상일치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역량과 결혼만족이 높을 것이다.

### 방법 및 절차

####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대구, 경북, 대전, 충남에 거주하는 임의로 선정된 231쌍의 결혼 1년 이상된 부부이었다.

설문지는 320쌍에게 배부되었으나, 남편과 부인이 함께 응답하여 수거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추가 제외하여 총

231쌍의 부부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절차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남편용과 아내용으로 별도로 제작되어 자기 및 배우자의 행동특성, 커뮤니케이션, 결혼만족 등의 순서로 응답하게 되어 있었다. 연구자가 직접 3회에 걸쳐 공고를 하여 설문을 실시하거나 지인을 통해 그들의 직장동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단한 연구취지를 설명한 후 배부하여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자기평가와 상대방 평가를 모두 하도록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인 신상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각 질문지에서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코드를 부여해 두었고, 응답자들에게는 익명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가 솔직하게 작성하기 위해, 배우자의 설문을 보지 말 것을 부탁했으며, 부부가 각각 설문에 응답한 후, 동봉한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부 직접 만나지 못한 배우자의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응답을 받았다.

#### 측정도구

##### **SYMLOG 형용사평정척도**

부부의 개인적 특성의 유사성 및 자신과 배우자의 현재와 이상의 차이지각은 Bales(1979)에 의해 개발되어 박재호(1984)가 한국어로 제작하였고, 진종국(1987)이 이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SYMLOG(A SYstem for the



표 1. 연구대상자 부부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연령대	20대	7( 1.5)	결혼기간	5년 이하	56(12.1)
	30대	83(18.0)		6-10년	50(10.8)
	40대	200(43.4)		11-15년	72(15.6)
	50대	144(31.2)		16-20년	80(17.3)
	60대	25( 5.4)		21-25년	142(30.7)
	무응답	3( 0.6)		26년 이상	60(13.0)
				무응답	2( 0.4)
결혼형태	중매혼	152(32.9)	교육수준	중졸	38( 8.2)
	연애혼	222(48.1)		고졸	149(32.3)
	절충혼	78(16.9)		대졸	232(50.2)
	무응답	10( 2.2)		대학원이상	41( 8.9)
			무응답	2( 0.4)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4( 0.9)	가족형태	부부	42( 9.1)
	201-300만원	36( 7.8)		미혼자녀와 동거	342(74.0)
	301-400만원	120(26.0)		기혼자녀와 동거	8( 1.7)
	401-500만원	140(30.3)		시부모와 동거	64(13.9)
	501만원 이상	132(28.6)		친정부모와 동거	6( 1.3)
	무응답	26( 5.6)			

Multiple Level Observation of Groups)형용사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행동특성을 기술하는 2~3개의 형용사들로 구성된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동빈도를 측정하는 3점 척도(1: 드물게, 2: 때때로, 3: 빈번히)로 구성되어 있다. 26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들을 기초로 6개 방향값(Upward, Downward, Positive, Negative, Forward, Backward)을 계산하며, 최종적으로 지배성(Upward-Downward)차원, 과업지향성(Forward-Backward)차원, 우호(Positive-Negative)의 3개의 차원을 다룬다.

상호평정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부부 각자가 지시문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에 대해 현재상(부부가 현재 보여주는 이미지), 희망상(배우자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 거부상(배우자로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이미지) 등을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희망상 외에 추가로 자신에 대한 희망상을 평정하였다. 전종국(1987)이 검증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우호성(P-N)척도는 .920, 목표 및 과업지향성(F-B)척도는 .820, 지배성(U-D)척도는 .802이었다.

### 결혼만족 척도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Spanier(1976)가 개발한 “Dyadic Adjustment Scale(DAS)”를 이민식 등(1995)이 우리말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래의 척도는 총 3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3가지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의(예: 애정표현에 의견이 일치한다) 6문항, 응집(예: 외부의 관심이나 취미활동을 부부간에 같이 하기) 4문항, 화목(예: 나와 배우자는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거나 서로에게 짜증을 낸다) 4문항의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가중치가 다른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항에 따라 1에서 6 혹은 1에서 5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부부만족점수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개의 하위척도 점수들로서 각 척도들의 점수범위는 부부만족도; 1-83, 동의; 6-36, 응집; 4-23, 화목; 4-24이다. 이민식과 김중술(1995)가 보고한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영역별 신뢰도는 응집은 .836, 동의는 .797, 화목은 .784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78이었다.

### 부부 커뮤니케이션 척도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척도는 Christenson과 Sullaway(1984)가 제작한 의사소통 패턴 질문(Communication-Pattern Questionnaire)를 이정은 등(200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래의 척도는 5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3가지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의사소통의 세 단계(부부관계

에서 어떤 문제가 처음 생길 때, 문제를 의논할 때, 문제에 대한 의논이 끝난 후) 3국면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특정한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촉진협조(예: 우리 부부는 둘 다 문제를 의논하려고 노력한다) 6문항, 교전전략(예: 나는 배우자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4문항, 수동간접(예: 배우자가 문제를 의논하려고 하면, 나는 그것을 피한다) 8문항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에는 해당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언제나 그렇다(9점)’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정은 등(2000)이 보고한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67 ~ .85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영역별 신뢰도는 촉진협조는 .858, 교전전략은 .855, 수동간접은 .827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20이었다.

### 자료 분석

먼저, 부부간 특성의 유사성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YMLOG 26개 문항의 자기평가 값을 기초로 6개 방향값(Upward, Downward, Positive, Negative, Forward, Backward)을 계산하였다. 과업지향성 차원값은 F방향 값에서 B방향 값을 제외한 것이며, 우호성 차원값은 P방향 값에서 N방향값을 제외한 것이다. 지배성 차원값은 U방향값에서 D방향값을 제외하여 3개의 차원값을 산출하였다. SYMLOG 평가 결과에 따라 부부가 모두 PF인 집단, 부부가 모두 PB인 집단, 남편은 PF이고 아내는 PB인 집단, 남편은 PB이고 아내는 PF인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밖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NF, NB, NO, PO에 해당하는 부부들은 본 분석에는

제외하였다.

또한, 자기와 배우자에 대한 이상과 현재의 차이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자신과 배우자의 특성에 대한 현재상과 희망상 값을 산출하였다. 즉 (1) 자기의 현재상 지각값, (2) 배우자에 대한 현재상 지각값, (3) 자기의 희망상 지각값, (4) 배우자에 대한 희망상 지각값을 별도로 산출하였다. 자기 및 배우자상 일치 차이를 산출하기 위해서 자기상일치도는 (1)-(3)의 절대값을 산출하였다. 배우자상일치도는 (2)-(4)의 절대값을 배우자상 일치도 크기로 정의하였다. 부부집단에 따른 결혼만족과 커뮤니케이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각각 실행하였다. 각 변량분석 결과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Scheffe 사후분석으로 살펴보았다.

### 결 과

#### 부부간 개인적 특성의 유사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의 차이

부부간 개인특성의 유사성에 따라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과업지향성의 부부간 유사성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우호적이며 과업지향적인 집단(1집단, 부부PF), 부부가 모두 우호적이며 감정지향적인 집단(2집단, 부부PB), 부부가 함께 우호적이거나 남편은 과업지향적이고 아내는 감정지향적

표 2. 부부간 개인 특성의 유사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의 평균(SD)과 변량분석 결과 요약

	부부PF (n=58)	부부PB (n=40)	남편PF (n=82)	아내PF (n=18)	F	Scheffe
	M(SD)	M(SD)	M(SD)	M(SD)		
축진협조	40.69(8.70)	38.85(8.94)	37.17(8.93)	35.61( 9.16)	2.432	
교전전략	6.74(3.45)	9.95(6.06)	10.05(5.89)	10.17( 4.62)	5.457**	
수동간접	21.38(7.86)	27.45(8.17)	27.73(8.76)	28.56(12.51)	7.258***	1 < 2,3,4

\*\* $p < .01$ , \*\*\* $p < .001$ .

표 3. 부부간 개인 특성의 유사성에 따른 결혼만족의 차이의 평균(SD)과 변량분석 결과 요약

	부부PF (n=58)	부부PB (n=40)	남편PF (n=82)	아내PF (n=18)	F	Scheffe
	M(SD)	M(SD)	M(SD)	M(SD)		
동의	27.74(4.51)	26.38(3.58)	26.71(4.59)	22.00(6.10)	7.409***	1,2,3 > 4
응집	14.81(3.11)	14.68(3.44)	13.40(3.21)	12.22(3.12)	4.566**	1,2 > 4
화목	18.72(3.03)	16.95(3.43)	17.65(3.41)	16.00(3.33)	4.150**	1 > 4

\*\* $p < .01$ , \*\*\* $p < .001$ .

인 집단(3집단, 남편PF), 반대로 우호성은 같고 남편은 감정지향적이고 아내가 과업지향적인 집단(4집단, 아내PF)으로 구분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표 2, 3).

변량분석 결과, 4개의 집단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영역 중 부정패턴인 교전전략과 수동간접에서 각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F(3, 194)=5.457, p<.01$ ;  $F(3, 194)=7.258, p<.001$ . 그러나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 교전전략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수동간접에서는 1집단(부부PF)이 2집단, 3집단, 4집단보다 모두 유의미하였다. 즉 부부가 함께 목표 및 과업지향적일 때 상호회피하거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대화를 요구할 때 회피하는 수동간접패턴을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p<.001$ ).

4개의 집단에 따른 결혼만족의 차이는 모든 영역(동의, 응집, 화목)에서 집단 간 결혼만족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3, 194)=7.409, p<.001$ ,  $F(3, 194)=4.566, p<.01$ ,  $F(3, 194)=4.150, p<.01$ .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 동의에서는 4집단(아내PF)이 다른 3집단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낮았다. 즉 아내보다 남편이 목표 및 과업지향성이 더 낮을 경우 문제발생시 부부간 의견일치가 다른 집단보다 낮았다( $p<.001$ ). 응집에서도 4집단(아내PF)이 부부간 특

성이 유사한 1집단과 2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즉 아내보다 남편이 목표 및 과업지향성이 더 낮은 경우 부부가 함께 과업지향적이거나 감정지향적인 집단보다 결혼만족의 응집도가 낮았다( $p<.01$ ). 화목에서는 1집단(부부PF)이 4집단(아내PF)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부부가 모두 목표 및 과업지향적인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과업지향성이 낮은 집단보다 결혼생활에서 더 화목하였다( $p<.01$ ).

배우자상일치도 수준에 따른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의 차이

배우자상의 일치도 수준에 따라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배우자의 현재상과 희망상 점수 차이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차이값의 크기가 적은 하위 33%의 배우자상 일치도가 높은 집단(1집단), 중앙 33%의 배우자상 일치도 중간 집단(2집단), 차이값의 크기가 큰 상위 33%의 배우자상일치도가 낮은 집단(3집단)으로 구분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 지 알아보았다(표 4, 5, 6).

변량분석 결과, 우호성(P-N)차원에서 3개의 모든 집단에서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영역별(촉진협조, 교전전략, 수동간접)에 따라 유의미

표 4. 배우자상일치도 우호성(P-N)차원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의 평균(SD)과 변량분석 결과 요약

	P-N 고 (n=189)	P-N 중 (n=122)	P-N 저 (n=151)	F	Scheffe
	M(SD)	M(SD)	M(SD)		
촉진협조	37.17(9.22)	37.48( 8.90)	33.52( 9.11)	8.795***	1,2 > 3
교전전략	9.93(5.72)	9.70( 5.74)	12.40( 5.94)	9.961***	1,2 < 3
수동간접	26.49(9.99)	26.16(10.87)	32.71(10.72)	18.729***	1,2 < 3

\*\*\*  $p<.001$ .

표 5. 배우자상일치도 우호성(P-N)차원에 따른 결혼만족의 차이의 평균(SD)과 변량분석 결과 요약

	P-N 고 (n=189)	P-N 중 (n=122)	P-N 저 (n=151)	F	Scheffe
	M(SD)	M(SD)	M(SD)		
동의	26.68(4.75)	25.42(4.72)	23.80(4.72)	15.522***	1,2 > 3
응집	13.98(3.45)	13.05(3.78)	11.72(3.42)	17.263***	1,2 > 3
화목	18.04(3.34)	17.61(3.13)	15.48(3.43)	26.935***	1,2 > 3

\*\*\*  $p < .001$ .

표 6. 배우자상일치도 과업지향성(F-B)차원에 따른 결혼만족의 차이의 평균(SD)과 변량분석 결과 요약

	F-B 고 (n=226)	F-B 중 (n=119)	F-B 저 (n=117)	F	Scheffe
	M(SD)	M(SD)	M(SD)		
동의	25.80(4.85)	25.13(5.24)	24.93(4.50)	1.478	
응집	13.23(3.69)	12.97(3.64)	12.57(3.58)	1.254	
화목	17.45(3.41)	17.13(3.43)	16.35(3.65)	3.876*	1 > 3

\*  $p < .05$

하였다,  $F(2, 459)=8.795, p<.001, F(2, 459)=9.961, p<.001, F(2, 459)=18.729, p<.001$ .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 3집단이 1집단, 2집단보다 긍정패턴인 촉진협조에서는 유의미하게 낮았고, 교전전략과 수동간접에서는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우호성(P-N)차원에서 배우자상일치도가 낮을 경우, 배우자상일치도가 더 높은 집단보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낮았다( $p<.001$ ). 또한, 우호성(P-N)차원에서 집단 간 결혼만족(동의, 응집, 화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집단 간 결혼만족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2, 459)=15.522, p<.001, F(2, 459)=17.263, p<.001, F(2, 459)=26.935, p<.001$ .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 3집단

이 1집단, 2집단보다 결혼만족의 모든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즉 우호성(P-N)차원에서 배우자상일치도가 낮을 경우, 배우자상일치도가 더 높은 집단보다 부부간의 결혼만족이 더 낮았다( $p<.001$ ). 그러나, 과업지향성(F-B)차원에서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점수의 차이는 모든 영역(촉진협조, 교전전략, 수동간접)에서 집단 간 점수 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집단 간 결혼만족 점수의 차이를 과업지향성(F-B)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 중 화목에서만 유의미하였다,  $F(2, 459)=3.876, p<.05$ .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 1집단이 3집단보다 화목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과업지향성(F-B)차원에서 배우자상일치도가

높을 경우, 배우자상 일치도가 낮은 집단보다 결혼생활에서 안정적이며 갈등을 적게 경험하였다( $p < .05$ ).

자기상일치도 수준에 따른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의 차이

자기상의 일치도 수준에 따라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자기상일치도에서도 33.3%씩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서로 차이가 나는 지 알아보았다(표 7, 8).

변량분석 결과, 우호성(P-N)차원에서 3개의 모든 집단에서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영역별(촉진협조, 교전전략, 수동간접)에 따라 유의미하였다,  $F(2, 459)=8.219, p < .001, F(2, 459)=$

$5.413, p < .01, F(2, 459)=13.412, p < .001$ .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 3집단이 1집단, 2집단보다 긍정패턴인 촉진협조에서는 유의미하게 낮았고, 교전전략과 수동간접에서는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우호성(P-N)차원에서 자기상일치도가 낮은 경우, 자기상일치도가 더 높은 집단보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낮았다( $p < .01$ ). 또한, 우호성(P-N)차원에서 집단 간 결혼만족(동의, 응집, 화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집단 간 결혼만족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2, 459)=11.284, p < .001, F(2, 459)=17.102, p < .001, F(2, 459)=23.574, p < .001$ . 사후검증(Scheffe)한 결과, 3집단이 1집단, 2집단보다 결혼만족의 모든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낮았다. 즉 우호성(P-N)차원에서 자기상

표 7. 자기상일치도 우호성(P-N)차원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의 평균(SD)과 변량분석 결과 요약

	P-N 고 (n=179)	P-N 중 (n=147)	P-N 저 (n=136)	F	Scheffe
	M(SD)	M(SD)	M(SD)		
촉진협조	37.46(9.04)	36.78( 9.48)	33.43( 8.79)	8.219***	1,2 > 3
교전전략	9.88(5.40)	10.39( 6.22)	12.02( 6.01)	5.413**	1 < 3
수동간접	26.31(10.17)	27.43(10.63)	32.32(11.05)	13.412***	1,2 < 3

\*\* $p < .01$ , \*\*\* $p < .001$ .

표 8. 자기상일치도 우호성(P-N)에 따른 결혼만족의 차이의 평균(SD)과 변량분석 결과 요약

	P-N 고 (n=179)	P-N 중 (n=147)	P-N 저 (n=136)	F	Scheffe
	M(SD)	M(SD)	M(SD)		
동의	26.58(4.71)	25.26(4.81)	24.01(4.81)	11.284***	1 > 3
응집	13.95(3.45)	13.12(3.89)	11.61(3.22)	17.102***	1,2 > 3
화목	18.12(3.37)	17.29(3.24)	15.53(3.40)	23.574***	1,2 > 3

\*\*\* $p < .001$ .

일치도가 낮을 경우, 자기상일치도가 더 높은 집단보다 부부간의 결혼만족이 더 낮았다 ( $p < .001$ ). 그러나, 과업지향성(F-B)차원에서는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및 결혼만족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부부간의 개인적 특성을 유사성과 성역할기대의 측면에서 연구하고, 그러한 조합유형과 부부관계의 질, 즉 결혼만족 및 커뮤니케이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부의 배우자상 및 자기상의 일치도 크기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간 개인적 특성의 유사성 조합에 따라 구분한 집단(부부PF, 부부PB, 남편PF, 아내PF)에 따라 부부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한 결과, 긍정패턴(축진협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부부PF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수동간접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즉, 부부가 모두 목표 및 과업지향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커뮤니케이션에서 수동간접패턴을 확연히 적게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가 모두 목표 및 과업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갈등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주제를 상호회피하거나 한 사람이 대화를 요구할 때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간접적이고 우회하는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부부PF집단”은 커뮤니케이션 역량뿐만 아니라 결혼만족점수도 네 집단 중에 가장 높았는데 이는 행동주

의 이론을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 이론에서 관계 안에서 나누는 긍정적인 행동이 부부관계를 강화시켜주며, 부정적 행동이 부부관계를 손상시키며, 부부간의 서로 다른 욕구와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부부만족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실제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효과적인 갈등해결기술을 활용한다는 Gottman(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른 변수들에 관한 연구보다도 더 많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

둘째, 부부 각 집단에 따른 결혼만족의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만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부의 개인적 특성이 유사한 경우 즉, 부부가 함께 과업지향적이거나 감정지향적인 집단은 결혼만족이 높았고 부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아내보다 더 과업지향적인 집단은 결혼만족이 유의하게 낮지 않았다. 다만 그 반대 경우인 아내가 남편보다 더 과업지향적인 집단만이 결혼만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인 남편 혹은 아내라는 성역할에 따라 기대하는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편이 아내보다 더 목표 및 과업지향적인 특성을 지닐 때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더 만족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더 목표 및 과업지향적일 때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불만족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유사성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예: 고재홍, 전명진, 2003; 김미경, 고재홍, 2008; Gon-zaga, Campo, & Bradbury, 2007)의 결과와 일치하며, 배우자의 조건에서 남성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더 선호하나 여성은 남성의 능력, 지위,

야망,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Buss, 1990, 1993)의 결과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결혼생활에서 결혼만족과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해 나가면서 적어도 어떤 부분의 특성의 차이와 성역할기대를 이해하면 부부갈등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배우자에 대한 현재와 이상의 차이의 크기와 결혼만족과 커뮤니케이션에 차이가 있는지 변량분석과 사후분석을 한 결과, 우호성 특성에서 배우자상일치도 크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에 대한 우호성 특성의 현재수준과 이상간의 지각차이가 클수록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결혼만족도가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과업지향성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결혼만족의 영역 중 화목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과업지향성의 현재수준과 이상과의 차이가 작을수록 결혼만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자기에 대한 현재와 이상의 차이 크기와 결혼만족과 커뮤니케이션에 차이가 있는지 변량분석과 사후분석을 한 결과, 우호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호성에서 자기의 현재수준과 이상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부부간에 부정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많이 사용하며 결혼만족도 유의하게 낮다는 것이다. 과업지향성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중 교전전략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결혼만족도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부의 개인적 특성인 우호성과 과업지향성이 부부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는 부부의 개인적 특성이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주요인임을 보고한 기존 연구(이정은·이영호, 2000; Karney & Bradbury, 2000)를 지지하며, 배우자 선호조건에서 성차가 있음을 입증한 연구와도 상통하는 결과를 보여 주목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개인적 특성이 결혼만족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역량까지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Buss, 1990, 1993;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장춘미, 1998).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과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상 및 배우자일치도 수준에 따른 과업지향성(Forward-Backward)차원이 부부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에 유의할 것이라는 관련된 가설이 모두 지지되지 않은 결과는 다음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방향을 선호하는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및 배우자에 대해 현재수준과 이상의 일치 크기에 따라 부부관계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절차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즉, 과업지향성차원이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이유 중 하나는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즉, 우호성(P-N)차원은 비우호성(Negative)보다 우호성(Positive)을 원하는 방향성이 분명하다(김혜주, 2005; 박재호, 1988; 손현주, 2004; 석말숙, 1989, 진명옥, 1995 참조). 자신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바라는 모습이 우호성인 따뜻하고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길 희망하므로 그 일치도가 높을수록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Higgs(1989)의 주장처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세 요소 중 자기와 상대방에 대한 지각차이가 이차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반면에,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부는 과업지향성이나 감정지향성 중 단지 한 방향만을 선호하지는 않음을 볼 수 있다. 부부 두 사람의 과업지향성의 일치도 크기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처럼 과업지향성차원의 과업지향성과 감정지향성 중 선호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자기상 및 배우자상의 일치수준만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부부관계를 살펴보았을 경우 우호성차원과 다르게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래연구에서는 일치도 수준 외에 먼저 어떤 차원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한 후, 보다 세분화하여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SYMLOG 척도를 사용하여 부부의 개인적 특성을 과업지향성과 우호성의 두 가지 영역에서만 결혼만족과 커뮤니케이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 기본 개별특성의 종류가 다르다. 이후의 후속연구는 측정 영역을 넓혀 다양한 측면에서 부부간 상호지각에 대한 결혼만족간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속변인을 부부간 갈등대처방식이나 정서적 친밀감과 심리적 안녕감 등으로 확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부간 상호지각의 차이와 크기를 부부간의 차이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차이의 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은 차이점수 이외에도 부부간 프로파일의 일치도로 알아보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몇몇 인구변인은 고려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결혼형태에 따라 연애결혼은 감정적이고 관계지향적 특성을 더 선호할 수 있고 조건을 먼저 본 후 만나는 중매결혼의 경우는 목표 및 과업지향성특성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과업지향성과 결혼만족에 수입이 제 3변인으로 과업지향성과 결혼만족에 모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요구된다. 실제로 월소득을 공변량으로 한 공변량 분석에서 소득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요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결혼만족에 성차가 작용하는 요인에 대해 좀 더 풍성한 부부관계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점들은 차후의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 남편, 부인에게 초점을 맞춘 개별적인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연구가 아닌 매우 드문 대인간 지각(interpersonal perception)연구로서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부부연구는 부부를 함께 조사할 때 훨씬 심도 깊은 연구가 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부부 쌍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 쌍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수집된 자료가 서로 상관된 쌍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분석에서는 부부를 남편과 아내로 구분하여 부부 중 한쪽의 특정변인(예: 남편특성)이 다른 쪽의 결과(예: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한 대인간 지각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부부들의 자료를 양자관계를 분석하는 틀로서 분석함으로써 양자관계의 자료를 개개인 수준에서 다룰 때 범할 수 있는 오류 없이 심층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간 유사성과 성역할기대라는 이원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집단유형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부부들의 개인적 특성의 유사성 뿐 아니라 부부간의 배우자와 자기에 대한 현재와 이상의 차이 수준까지 분석에 포함시켜 부부관계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결혼만족과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증진하는 데 유용한 부부간의 개인적 특성 및 성역할 및 배우자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Lewin의 집단역학 개념을 확장하여 Bales(1979)가 제작한 SYMLOG 척도가 부부관계 연구에 활용하기에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호성과 과업지향성의 차이와 크기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역으로 우호성과 과업지향성 차원이 서로 독립적 특성임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실용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혼율이 점점 높아져가는 현시점에서 부부가 서로 배우자의 특성 및 이상을 정확히 이해하

고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부부갈등이 줄어들어 이혼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부부상담시 부부의 갈등요인 중 하나가 배우자의 기대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생긴다는 점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부부간의 유사성이나 상호작용에 의한 집단 유형에 따라서 부부관계의 질에 차이가 발견된다면, 결혼생활의 만족을 위해 부부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집단의 유형과 현재 부부의 상호작용 유형의 진단 후의 집단개발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고재홍, 전명진 (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프로파일 유사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16.
- 김미경, 고재홍 (2008). 프로파일 일치도로 본 부부간 유사성과 배우자 이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03-123.
- 김향련, 고재홍 (2007).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89-105.
- 김혜주, 전종국 (2005). 정서역량과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6(2), 633-644.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재호 (1984). 소집단 연구의 방법론: Bales의 SYMLOG 상호교섭 측정법. 영남대학교 인문연구, 5, 509-531.

- 박재호 (1988). 新 場理論 SYMLOG: 이론적 측면과 응용적 측면. *인문연구*, 10, 181-214.
- 석말숙 (1989). 문제행동 청소년과 일반행동 청소년 가정의 가족 역동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현주 (2004). 부인의 취업여부와 부부의정서역량이 부부상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선주 (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201-215.
- 이민식, 김중술 (1995). 부부관계 적응척도 (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95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91-299.
- 이선희 (2000).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장춘미 (1998). 스트레스와 결혼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53-171.
- 전종국 (1987). SYMLOG형용사척도의 타당성 검증: 가족 상호작용과정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명옥 (1995). 가족구성원의 상호지각과 집단역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itelli, L. K., Douvan, E., Veroff, J. (1993). Perception of conflict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How important ar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0, 5-19.
- Bales, R. F. & Cohen, S. P. (1979). SYMLOG: A System for the Multiple Level Observation of Groups, New York: Free Press.
- Buss, D. M., & Barnes, M. (1990). International Preferences in selection mate A study of 37 cultures.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1-25.
- Buss, D. M., & Schmitt, D. P. (1993). Sexual strategies theor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 204-232.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J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raddock, A. E. (1991).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inal similarity, couple structure, and couple satisfaction, within married and defacto couple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3, 11-16.
- C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Dawson, D. A. (199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Data from the 1988 National Health Interview Study on Child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73-584.
- Gonzaga, G. C., Campo, B., Bradbury, T. (2007). Similarity, convergence, and relationship

- satisfaction in dating and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34-48.
- Gottman, J. M. (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15.
- Higgins, E. T. (1989). Self-discrepancy: A theory: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In berko 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2, pp. 93-136). New York: Academic Press.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Karney, B. R., & Bradbury, T. N. (2000).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enny, D. A., & Acitelli, L. K. (1994). Measuring similarity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417-431.
- Kenny, D. A., & Nasby, W. (1980). Splitting the reciprocity corre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Family Psychology*, 38, 249-256.
- Kline, M., Johnston, J. R., & Tschann, J. M. (1991). The long shadow of marital conflict: A model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97-309.
- Margolin, G., & B. E. Wampold. (1981). Sequential Analysis of conflict and Accord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arital Partn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554-567.
- Meyer, J. P., & Pepper, S. (1977). Need compatibility and marital adjustment in you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31-342.
- Sillars, A. L., Scott, M. D. (1983). Interpersonal perception between intimates: An integrative review.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0, 153-176.
- Simpson, J. A., Fletcher, G. J. O., & Campbell, L. (2000).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ideal standards in Close relationships. In G. J. O. Fletcher M. Clark(Eds.), *The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erpersonal processes*(pp. 86-106). Oxford, England Blackwell.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Thibaut, J. W. & Kell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 Tracey, T. J., Ryan, J. M., & Jaschik-Herman, B. (2001). Complimentarity of interpersonal circumplex trai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786-797.
- 1 차원고접수 : 2010. 2. 05.  
심사통과접수 : 2010. 9. 15.  
최종원고접수 : 2010. 9. 21.

## **The effect of couples' similarities and agreement level on their communication and marriage satisfaction**

**Oun Ji Kim**

**Jae Ho Park**

Yeungnam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ecute a research in dept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s similarities, image agreement level of the self and spouse and the couple's communication as well as general satisfaction in their marriage life. Randomly selected 231 married couples living in four different area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In terms of couples' similarities,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by feature combination of Positive-Negative and Forward-Backward. And about image agreement level, the result was drawn by self perceptual difference between Current image and Wish image of the self and of their spouse. The outcomes show as follows: firstly, the couple's communication competence is high when they share the same Forward direction. Secondly, the more similarities the couples have, the higher level of marriage satisfaction they have. As a noticeable result, even though they are different, husband's higher level of task directional tendency over the wife lead to higher satisfaction level in their marriage. Thirdly, when the gap between couples' wish images and current images is smaller, the level of their marriage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show higher. Above results suggest clearer expectation in gender role and accurate understanding of spouse's wish image as well as couples' similarities play a critical role in quality of marriage.

*Key words : couples' similarities, self-image agreement level, spouse image agreement level, marriage satisfaction, couple communication*